

해외구매사절단 미국 각지를 돌아보며

박순태/한국방송공사 라디오국 PD



미국여행

「여행」을 앞두고 어린이건 어른이건 가슴설레이는건 마찬가지일게다. 우리 일행들중에는 미국을 처음 여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주 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있었다. 물론 나는 처음이라 무척 설레이는 마음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일행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일행중에는 노사관계로 바쁜 업체대표도 있었지만 모두들 무엇인가 얻어오

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그래서 이번기회가 서로에게 뜻깊은 여행이라 느꼈다. 우선 이 기회를 빌어 환경관련업체 대표와 관계자 21명으로 구성된 「한국환경기기구매사절단」이 열흘간의 일정으로 미국에 파견되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환경보전협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우리 일행 21명은 들뜬 기분으로 NWA기에 탑승했다. 승강장을 오르는 일행들은 모두가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서로 얘기도 나누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다. 탑승 두시간후 일본 「나라따 공항」에 도착, 4시간동안 미국 시카코발 NWA 기를 기다려 탑승했다. 500여명이 탑승한 기내는 미국인, 일본인, 필리핀인들로 가득했고 13시간동안 쉼없이 신대륙을 향했다. 기내에서는 잠을 청하는 사람보다 책과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더 많았다. 미국시간 오후 3시 30분경, 시카코 오후라공항에 도착, 찬바람이 몰아치는 우리나라 초겨울 날씨를 연상하며 입국수속을 마쳤다. 그후 공항에서 멀지않은 웨스턴호텔에 도착해 방배정을 받은 후 간단한 환영인사가 있었다.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학 국제개발부 Jeffrey Strauss씨는 「한·미간의 국제 무역증대의 기여」라는 내용으로, 시카코 무역관장 선우영일씨는 미국인의 전반적인 상을 자세히 전해주었다.

강대국인 미국이 무역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돌아선 것은 지금부터 120년전인 1870년대였고, 채무국에서 채권국이 된 것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1914년이라 했다.

Chicago

Chicago는 미시간 호반 남쪽에 위치한 미국 제2도시로 상공업, 문화, 교통의 요충지이며 미국 발전에 기여한 역할이 지대하다. 가까운 근교인구를 합쳐 약 300만명, 미국철도의 심장부라 불리우는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델트라인 전철이 시내 중심가빌딩을 지나고, 전철은 몇사람 없어 한가한 느낌이었다. 시카코에서는 일행중 세대기재 고전무의 안내로 밤거리를 관광했다. Sears Tower(110층) 빌딩의 전망대에서 본 시카코시내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다. 야경으로 바라본 시내는 바둑판모양이었고, 끝이 보이질 않았다.

Sears Tower 빌딩은 미국 각지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통신판매 대기업빌딩으로 높이 435m 이나 되며 전망대는 103층에 있었다. 이밖에 큰 빌딩은 100층의 잔헨카빌딩, Standard Oil 빌딩, 원통형 Marina City 빌딩 등이라고 고전무는 열심히 설명해주었다. 시카코에서 첫날밤은 시차로 인해 비몽사몽으로 하룻밤을 보냈다. 이

튤날 9시부터 미국인 100여명이 참석한 한·미간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이달우 단장의 기조연설은 한국 기업인을 대변하는 좋은 내용이었다. 각 부문별 상담이 미국측과 진지하게 일대일로 진행되었다. 시차에 쫓긴 우리측 일행 몇몇은 피로와 졸음에 쫓기는 모습이었지만 좋은 제품과 기술에 만족하는 일행도 있었다.

7시 30분 시카코에서 다음 지역인 디트로이트로 출발하기 위해 짐을 챙겨야만 했다.

Detroit City

미시간주 동남부에 위치한 디트로이트는 미국의 다섯번째로 큰 도시며, 자동차 공업의 메카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Ford사를 비롯 GM 등 일류 메이커가 밤낮없이 기술과 생산성을 경쟁, 미국산업을 리드하고 있어 공항에서 본 첫인상이 활기에 넘쳐 보였다. 미국 자동차의 30%가 이곳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디트로이트의 원래 뜻은 「해협」을 뜻한 Detroit 란 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시카코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 메트로폴리탄공항은 시내로부터 32km 지점에 있다. 다운타운가에 있는 현대식 건물인 Pontchartrain Hotel에 도착하니 밤 9시. 일행은 동양식 음식인 중국요리집으로 각 팀별로 Taxi로 도착, 식사를 했지만 국내와 별반 차이는 없었다. 이곳 Taxi는 운전석과 승객사이에 두터운 방탄 유리로 분리되어 있었고 요금내는 조그만 창이 달려있어 혼자타면 겁이 날 것 같았다. 밤거리는 시카코와 마찬가지로 조용했고, 사람도 없었으며, 차만 한 가로이 다닐뿐 적막해 보였다.

오전에는 35명이 근무한다는 디트로이트 북부 정수처리장에서 수도물의 정수과정을 견학,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컴퓨터 처리과정을 우리 수준과 비교해가며 메모하는 우리 일행의 모습은 진지했다.

강변을 따라 3km정도 가는 동안의 주위경관은 아름다운 공원이었다. 미시간호수의 물 또한 맑은 초록빛이었고 Ambassador Bridge로 연결된 다리엔 캐나다 국기가 펄럭여 어딘가 물으니 「캐나다」국경 근방이란다. 국경근방 미시간호

수가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다.

날씨가 좋았으면 잔디에 앉아 미시간 호수를 바라보며 더욱 멋진 식사를 했을텐데 바람이 불고 추워 아쉬웠다. 일행이 오후 2시경 찾은 곳은 하수종말처리장이었다. 100만평 규모에 1930년 설립이 됐다는 이곳은 1,000여명이 근무하는 곳이다. 디트로이트의 하수는 모두 이곳을 거쳐 깨끗한 물이 되어 강으로 흘러간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설명을 들은 후 안전모와 안경을 쓰고 2시간 반동안 처리장 시설을 모두 둘러 보았다. 각 개인에게 사진을 찍어준다든가 “환영”이라고 쓴 한글 표지판으로 우리 일행을 환영하면서 다과회를 열어주어 피로하지만 흐뭇한 방문이었다.

이곳 근로자들은 각자 일이 세분화돼 있었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었다. 방문후 일본식 식사를 하고 NWA기로 내시빌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었다.

Nashville

Nashville은 테네시주의 주도로 인구 70만, 주 중앙부의 넓은 내시빌분지에 칸바란트강이 흐르고 있었다. Tennessee 음악으로 알려질만큼 미국 컨츄리 음악의 총 본산이기도 하다. 1982년 5월 세계 박람회 이곳에서 열려 우리나라도 25개국과 함께 참가한 바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곳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시였고, 그래서 딱 인상적이었다.

내시빌에서는 한·미간 환영사와 슬라이드 상영을, 오찬은 한국측에서, 무역상담은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측과 테네시 부지사와 주 상원의원의 환영사가 있었고, 부지사는 이달우 단장에게 테네시주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서 매우 흐뭇한 자리였으며 많은 박수도 받았다. 주상원의원은 환영사에서 한국이 15년 전 만해도 이쑤시게 하나 제대로 못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올림픽을 치루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흐뭇하다는 내용과 한국에서 근무할 당시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했다. 간간이 「김치」 「불고기」 「안녕하십니까」 등 우리말로 호감을 표시해서 더욱 흐뭇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한인회 박헌배 회장 등 교포, 학생 등도 참석했고 이곳에 살면서 이러한 자리는 처음이라고 놀라는 표정이었다.

일행중 벤가드 김사장의 친구 동생이 이곳에서 5년 고생끝에 기반을 닦아 살고 있어 초대를 받아 그동안 못먹었던 김치와 오이김치, 상치 등을 먹으며 즐거운 밤 한때를 즐겼다. 이곳에서 컨츄리뮤직에 반해서 음반을 상당량 구입한 일행도 있었다.

다음날 내시빌에서 고속도로로 1시간정도 간 곳은 GM회사의 제 2 공장이었다. GM회사의 안내로 2시간정도 버스안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년생산 24만대를 생산하는 이 공장의 대지는 약 150만평, 한국이 연간 70만대라니 엄청난 규모임에 틀림없다.

공장 방문후 20여리 떨어진 콜롬비아란 조그만 읍을 찾았다. 정원같은 이곳 중앙건물 화단앞에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참전비가 있었다. 참전비 앞에서 일행은 목례를 올렸다.

돌아오는 길에 음악박물관을 비롯한 RCA, EMI 등 세계 각국 음악사무실과 스튜디오 등을 찾았다. 음악도시답게 아름다웠지만 음악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하기만 했다. 공항으로 출발, 시카고를 거쳐 캔서스시의행 NWA기에 탑승, 3시간을 비행했다.

Kansas City

네시빌에서 시카고, 시카고에서 캔서스 시외로 가는 기내에서 보는 미국땅은 산이라곤 볼 수 없는 평원이었고 평원은 바둑판 같았다.

『북받은 나라』 『위대한 나라』 『넓은 나라』 이 넓은 신대륙을 누가 차지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내 양옆 좌석엔 미국인 남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그모습 그대로였다. 또 대학생인듯 젊은 이는 다 떨어진 블루진 바지차림으로 옆에 앉은 박사장에게 말을 건넨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돈 모아 바지 한벌 사주자”고 했다.

캔서스시티공항에 도착하니 주정부에서 근무하는 우리 교포 John Hong 씨가 구수한 천라도 사투리로 일행을 안내한다. 이튿날 상담후 주정부가 주최한 리셉션에서 교포와 유학생도 함께 참석했다. 이곳에 20년전에 이민 와서 부동산업을 하는 Mr. 이는 이곳이 토질이 매우 비옥하고 값도 싸니 한국인들도 이곳에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곳은 1평당 1불 정도라니 우리돈으로 670원 정도다.

한국의 북부인들이 이곳에 땅을 사면 한국땅일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날 캔서스 시티와 미조리주를 관광하는 환경보호국 산하 연구원에 들려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실험실 시설들을 둘러보며 자세한 설명도 들었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최첨단제도와 기기설명을 들은 후 캔서스 시티 공항을 떠나 LA로 향했다.

2시간후쯤부터 산이 보였다. 콜로라도강의 분류가 양쪽의 절벽을 뚫고 흘러가는 깊은 협곡으로 된 웅대한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마침 조각구름 떠있는 맑은 하늘에서 보는 그랜드 캐년 경관은 가히 일품이었다.

빙하기 말기부터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이 걸쳐 땅이 서서히 침식하여 대협곡이 된 “그랜드 캐년” 목을 빼고 계속 샷타를 놀러대는 박사장. 잠도 오질 않는다. 잠을 자면 아름다운 미국을 못

볼 것 같애 아예 잠을 포기했다.

LA

마지막 지역이다. 스페인의 탐험가 「가스펠드 포르토라」가 1709년 「롱비치」 무드에 캠프를 치고 「로스엔젤레스 포로스우코라」라고 이름지었다는 이 뜻은 「천사의 마을」이라 한다.

LA는 인구, 교통, 산업면에서 서부 제일의 도시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아 Korea Town 까지 형성된 LA이다. 주변인구를 합해 1,000만명에 이르러 뉴욕 도심권 다음 가는 대도시라고 한다.

LA International Airport에서 20km 떨어진 Orange County까지 Freeway로 가는 중 최홍식 사무총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레드 라이온 호텔까지 도착했다.

마지막일정 코스라서 그런지 모두가 가깝게만 느껴졌다.

그간 우리와 함께한 마샤양은 신혼 9개월의 단꿈도, 피곤도 잊고 우리와 함께 했다. 디즈니랜드에서 동심으로 돌아가 25만평 부지의 각종 시설들을 하루에 구경한다는게 무리하게 느껴졌다. 짧은 시간내 요령있게 원내를 도는 우리 일행들은 아쉬움과 두고온 자녀들이 생각이 났다.

디즈니랜드 관광후 일행은 한인식당 인천원에서 마음껏 한국에서의 느낌으로 밤늦게까지 즐겼다.

다음날 캘리포니아주 정부 관계자들과 일행은 상담을 계속 하며 정보교환도 하면서 마지막 공식 리셉션을 끝냈다.

일행은 함께 모여 “스페인 투우식” 말쇼를 관람했다. 1,000여명의 관람객들이 각 색깔별로 왕관모자를 쓰고 자기팀을 응원했다.

이달우 회장을 비롯한 우리 일행은 잠시 종합적인 평가를 가졌다. 지금까지 미국이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한다는 내용과 우리는 민간의교적인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인간적인 정이 오갔다는 것이 중요하며 이 모임을 지속시켜 오래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었다.

미국 여행중 부러운 것도 많았지만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어딜가나 넓적 넓적한 공간이었다. 하루종일 달려도 산하나 보이질 않고 광활한 들판들, 숲에는 나무가 나서 자라는대로 자라고, 넘어져 썩는대로 썩고, 사람의 발자국이 아직 닿지 않은 땅이 수두룩한 것을 보며 비좁은 우리 국토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서울

내일이면 서울이다. LA 공항에 도착하니 5시

간후 떠난다고 한다. 5시간은 지루해서 공항내에서 기다리며 소꿉도 했다.

끝으로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각 기업들은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한번 우리 일행을 인솔한 이달우 단장을 비롯 최홍식 사무총장, 궂은 일을 도맡아한 옥삼복씨,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

'89 국가기술 자격검정 시험 안내

기사

1. 시행일정

회별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예정)	필기시험 면제자원서 접수 ● 응시자격서류제출 및 필기합격자결정 ● 실기시험실비납부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예정)
제1회	필기시험면제자(필기시험에 합격한자 등)			1. 4 ~ 1. 7	1. 29 ~ 1. 31	2. 20
제2회	3. 6 ~ 3. 9	3. 26	4. 17	4. 17 ~ 4. 20	5. 14 ~ 5. 16	6. 12
제3회	3. 20 ~ 3. 23	4. 16	5. 8	5. 8 ~ 5. 11	6. 4 ~ 6. 7	7. 3
제4회	4. 17 ~ 4. 20	5. 7	5. 22	5. 22 ~ 5. 25	6. 18 ~ 6. 20	7. 10
제5회	6. 12 ~ 6. 15	7. 2	7. 24	7. 24 ~ 7. 27	8. 20 ~ 8. 22	9. 11
제6회	7. 3 ~ 7. 6	7. 30	8. 16	8. 16 ~ 8. 19	9. 10 ~ 9. 12	10. 4
제7회	8. 7 ~ 8. 10	9. 3	10. 2	10. 2 ~ 10. 6	10. 29 ~ 10. 31	11. 20
제8회	10. 2 ~ 10. 6	10. 29	11. 13	11. 13 ~ 11. 16	12. 3 ~ 12. 5	12. 28

2. 시행종목

()는 기술분야

회 별	자 격 종 목 및 등 급
제1회 필기시험 면제자	<기계> 건설기계1·2급, 자동차정비1급 <전자> 전자1·2급 <토목> 토목1·2급 <건축> 건축1·2급 <인전관리> 산업안전1급, 산업위생관리1·2급 <환경관리> 환경1·2급
제2회	<기계>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2급 <전자> 전기1·2급 <전자> 전자1·2급, 전자계산기1급 <토목> 토목재료시험1·2급 <에너지> 원자력1급 <국토개발> 조경1급, 지적1·2급 <인전관리> 건설안전2급
제3회	<기계> 건설기계1·2급, 정밀측정1·2급, 전산응용기계2급 <전기> 전기공사1·2급 <통신> 전파통신2급, 유선설비1급 <토목> 토목1급 <건축> 건축2급 <광업> 광산보안2급 <에너지> 열관리1급 <국토개발> 측지1·2급 <인전관리> 산업안전1급, 가스1급, 소방설비1·2급 <환경관리> 환경1급

제4회	<기계> 기계1·2급,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1급, 용접2급, 금형설계1·2급 <전자> 제측제어1·2급 <통신> 무선설비1·2급 <광업> 광산보안1급 <국토개발> 지역 및 도시계획1급, 조경2급 <인전관리> 건설안전1급, 가스2급 <생산관리> 품질관리1급 <산업응용> 원예종묘1급, 임업종묘1·2급, 축산1·2급
제5회	<기계> 자동차정비1급, 공정설계1급, 용접1급, 농업기계1·2급 <통신> 전파통신1급, 유선설비2급 <토목> 토목2급 <건축> 건축1급 <국토개발> 조경1급, 지적1·2급 <인전관리> 산업안전2급 <환경관리> 환경2급
제6회	<기계> 철도차량1급 <전기> 신호보안2급, 전기1·2급 <전자> 제측제어1급, 전자계산기1급 <통신> 전파통신2급, 유선설비1급 <토목> 토목재료시험1·2급 <건축> 건축2급 <에너지> 원자력2급 <국토개발> 조경2급, 측지1·2급 <인전관리> 건설안전3급, 산업위생관리1·2급 <산업응용> 식품제조가공1급, 수산제조1급, 기상1·2급, 원예종묘2급, 식물보호1급, 비파괴검사2급
제7회	<기계> 건설기계2급, 철도차량2급, 증기정비1급, 치공구설계1급, 기계1급,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2급, 정밀측정1·2급, 전산응용기계2급 <전자> 전기공사1·2급 <통신> 무선설비1·2급 <토목> 토목1급 <광업> 광산1급, 광산보안2급 <에너지> 열관리1급 <국토개발> 지역 및 도시계획1급 <인전관리> 산업안전1급, 소방설비1급, 자동차검사1급, 가스1급 <생산관리> 품질관리2급, 포장2급 <환경관리> 환경1급
제8회	<기계> 기계2급,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1급, 건설기계1급, 자동차정비2급, 증기정비2급, 치공구설계2급, 제형1·2급, 용접2급, 금형설계1·2급 <전자> 신호보안1급 <전자> 제측제어2급, 전자1·2급, 전자계산기2급 <통신> 전파통신1급, 유선설비2급 <토목> 토목2급 <건축> 건축1·2급 <광업> 광산2급, 광산보안1급 <인전관리> 산업안전2급, 건설안전1급, 소방설비2급, 자동차검사2급, 가스2급 <생산관리> 공정관리1·2급, 품질관리1급 <환경관리> 환경2급